

시론



신준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상인(商人)의 어원은 고대 중국의 은(殷)나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은나라의 원래 명칭은 상(商)나라였는데, 후대에 상나라가 수도를 은허(殷墟)로 옮기면서 은나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은나라가 주(周)나라에 의해 멸망하면서 나라를 잃은 상나라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 중국 전역으로 흩어져 행상을 하면서 '물건을 팔고 다니는 상나라 사람(商人)'이라는 고사에서 상인이라는 용어가 유래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업적(專業的) 상인은 지역을 기반으로 상인조직이 존재해 왔는데, 고조선 시대부터 존재하였던 보부상(倣負商) 중심의 행상(行商)을 전업적 상인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상인들은 조선 건국과 더불어 개경을 중심으로 한 개성(開城)상인, 전남 강진 병영성을 중심으로 한 병영(兵營)상인,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의주(義州)상인, 한강을 중심으로 한 경강(京江)상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래(東萊)상인 등 지역 기반의 상업활동은 더욱 발전하였고 조선의 중기 및 후기에 이르러 독자적인 상인조직과 체계를 유지하며 성장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업활동의 전환점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르면서

우리나라 전통 상인(商人) 이야기

조선왕조의 봉건적 신분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상업의 발달과 상인조직의 성장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북에는 당시 송도(松都)로 불렸던 개성의 개성상인이 남에는 전남 강진의 병영상인이 상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상인계급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으로 구분된 양천제(良賤制)를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반(兩班), 농민(農), 장인(工), 상인(商), 천민(賤民)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여기서 양반, 사농공상을 양인이라고 하였고 백정, 노비 등은 천인으로 불렸다.

당시 양천제에서 상인들은 공식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인계급은 신분상 심하게 천대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구분되는 양인(良人)의 경우 관습상 실제적으로 여러 제약은 있었지만 적어도 법제상으로는 관학(官學)이나 사학(私學)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유학(儒學)을 기본 가치관으로 받아들여, 관학(官學)으로 중앙에 성균관(成均館)과 지방에 향교(鄕校)를 설치하여 백성들에게 유교적 가치관을 교육하였으며, 사학(私學) 기관인 서원(書院)과 서당(書堂)을 통하여 일반 백성들도 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이러한 체계적인 유학 교육이 상인계급 발전과 상인정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유학은 삼국시대부터 정

치적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은 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성리학(性理學)이란 또 다른 이름으로 정치 및 관료제도, 학문과 교육, 일상의 생활과 문화를 규율하는 사상이었다.

성리학은 공자(孔子), 맹자(孟子)로 대표되는 유학사상을 송대(宋代)의 주자(朱子)가 철학적 이론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고려 말 원(元)나라부터 전해져 조선시대의 건국이념과 통치이념이 된 사상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전통 상인들은 상업적 재능 뿐 만이 아니라 학문의 수준도 상당 수준 갖추었으며, 전통적인 유학사상에 기반한 기본적인 학식을 뿌리로 다양하고 독특한 상업정신을 정립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성리학에 기반한 유학사상이 우리나라 전통 상인정신 정립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상인정신은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상인교육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통 상인들의 상인정신을 상훈(商魂), 상도(商道)로 부르며 이를 '상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 행하여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하였다.

현대의 기업가정신은 우리나라 전통적 상인정신인 상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기업에 있어서 기업가의 역할은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제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 상인정신을 본받아 ESG경영에 기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등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최악 불황에 자영업 폐업 속출 지역경제 위기 고조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시대를 맞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국제청 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도에 100만8천282명으로 집계됐다.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당시를 넘어섰다. 폐업은 음식점과 소매업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광주 14만4천명, 전남 29만9천명 등 모두 44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만5천584명이 문을 닫았다. 하루 평균 152곳에 달하는 가게가 사라진 셈이다. 올해 2 주세는 이어져 5개월 만에 1만1천명 줄었다. 연쇄적으로 상가 공실률도 뛰고 있다. 광주 총장로·금남로의 중대형의 경우 지난해 1분기 31.0%를 기록한 뒤 4분기 24.4%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1분기 26.4%로 올라섰다. 소규모 상인도 10% 이상이다. 대표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전남대 주변 역시 지난해 4분기 37.7%에서 올해 1분기 38.0%로 증가했다.

극심한 경기 부진의 여파가 서민들에게 직접 미치고 있다. 주된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을 꼽는다. 먹고사는 문제가 당면 과제가 됐다. 다음

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이 딱 막힌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근본 처방으로 부족하다. 내수 진작, 지역경제 회복, 자영업 지원 등을 망라한 전방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확산 캠페인 진행 및 참여 독려,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 활용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 가입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0억원 규모의 이벤트도 추진한다.

벼랑 끝이다. 고물가에 따라 기본재료비는 물론 인건비도 치솟으면서 종업원 없이 나올로 버티는데도 역부족이다. 손님 구경도 못한 날이 지기수다. 수입은 고사하고 빚만 늘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최악이다. 수십년 장사를 했어도 처음있는 일이라는 하소연이다. 광주·전남 인구 10명 중 1명 꼴인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지역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광주 장애인콜 AI 시스템 도입에도 부실 운영 도마위

광주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AI(인공지능) 기반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대기하는 등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전반적인 운영 부실이 드러났다.

서용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 따르면 6억4천200만원을 들인 자동배차체계는 AI 알고리즘의 정확도 부족으로 인한 교통량, 도로 상황, 수요 패턴 등을 실시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수요 역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택시의 평균 대기 시간이 5-15분인데 비해 장애인 콜택시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특장차는 평균 2시간, 길게는 4-5시간이 소요된다. 장애인 이동 편의 대책이 겹칠고 있다. 여전히 배차 지연이 해소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우선배차제 도입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형평성 우려 및 운영 효율 저하까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배차 단축을 위해 지속해 힘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이다. 물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

리다. 인격체로서 차별받지 않을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출근길 혼잡 초래 등 일부 논란에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광주시 산하 출연 기관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전력하고 있다. 시민의 편의 및 복지 향상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제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오래다. 고질적인 배차 문제 뿐 아니라, 이 번에 운전원 성과급 균등 지급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권역별 차고제의 효율성 문제, 운전원 노조 교육으로 인한 능력 행정, 광역 이동 서비스 수행 한계 등도 지적되는 실정이다. 지금껏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AI 기반 자동배차시스템 상의 허점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긴급 상황을 반영한 우선배차도 긍정 검토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일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해선 안 된다.

기고



김선옥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세상은 매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제와는 다른 낯익은 오늘이 시작된다. 그 다름을 감지하고 기꺼이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성급히 예단하지 않으며,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실히 발을 딛는다.

현명한 사람은 매일 아침을 새로운 삶처럼 맞이한다. 어제의 후회는 자양분이 되고, 내일의 걱정은 오늘의 실천으로 녹여낸다. 그에게 아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이다.

"존재하는 것에 질문하는 자만이 진정 깨어 있는 자다" -하이데거-

깨어 있는 자만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찾던 하나,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와 의미를 발견한다. 하루를 새롭게 여긴다는 건 단지 낙천성이 아니라, 깊은

현명한 사람은 하루가 새롭다

성찰에서 비롯된 태도이며 자기 갱신의 방식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는 행위는 작지만 위대한 선택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 의식을 붙여 넣고, 실천의 기회로 바꿔낸다. 그는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

삶의 진실은 거창한 변화보다 평범한 하루에 숨어있다. 익숙한 골목의 노을, 작은 다짐 속에 진실은 고요히 머문다. 현명한 이는 그 고요함을 놓치지 않는다.

키에르케고르는 "위대함은 항상 내부에 있으며,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진실이다"고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외부의 변화보다 내면의 '작은 혁명'에 귀 기울인다. 그는 찰라의 오늘이 영원으로 통하는 문임을 안다. 질문은 그의 습관이고, 성찰은 그의 일상이다. 오늘이 끝나기 전,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그는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올 시간을 설렘으로 맞는다.

삶은 유보할 수 없기에, 그는 '지금 여기'에

서 삶을 최대한 살아낸다. 그는 하루를 '읽는다'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의 문장을 정성껏 써내려간다. 존재와 존재 사이를 잇는 번역자처럼, 삶의 사소한 기미들 속에서 의미를 해독한다.

현명한 이에게 '일상'은 반복이 아니라, 질문과 해석의 여백이다. 그는 무심코 흘러보낼 시간에도 마음을 엮는다. 에피테토스는 "문제는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고 언급했다.

하루를 새롭게 사는 건 오래된 창을 여는 일처럼 내면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행위다. 보이지 않던 가능성에 눈둘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오늘'이다.

그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간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인생이 된다. 인생은 하루라는 작은 단위로 만든 섬세한 작품이다. 오늘도 현명한 이는 조용히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삶을 새롭게 여긴다는 건 존재의 방향타를 붙잡겠다는 선언이다. 살아지는 삶이 아니라, 의지와 성찰로 살아내는 삶.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이다.

독자투고

아동 성 착취 대화는 디지털 공간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이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악용하려는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러한 대화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절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다.

아이들에게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시 부모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도록 가르쳐야 한다.

'비밀 대화'나 '선물'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별명이나 프로필 사진 등

늘어나는 아동 성 착취 대화 근절 위해 예방이 필수

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부모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수적이다.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무관심하기보다는, 어떤 앱이나 게임을 사용하는지, 누구와 소통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자 제어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개방적인 소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아동 성 착취 대화를 유도하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며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도 자율적인 감시와 신고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아동 성 착취 대화와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모든 아이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박병용·광주광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국내은행 대출태도종합지수 추이



은행들은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형태 세부'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p) 떨어졌다.

대출태도가 더 간간해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대출 주체별로 나눠 보면,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2분기(-11·-11)와 비교해 뚜렷하게 태도 강화 전망이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14에서 -6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강화 우위 상태. 반대로 대기업(6)의 경우 완화 우위로 돌아섰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6)는 2분기(15)보다 10p 낮아졌다. 수요 증가 전망이 여전히 감소보다 많지만,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6)는 감소 전망 우위로 전환됐다. 하지만 중소기업(11→25)에서는 수요 증가 전망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 은행이 예상한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전 분기(2)보다 7p 떨어졌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에서 모두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줄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